

즉자적 공간예술과 미니멀리즘 건축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inimal Architecture and Literal Space

이은석* / Lee, Eun-Suk

임종엽** / Lim, Jong-Yup

Abstract

It opposition to the visual luxury of Post modern Architecture, a new tendency characterized as 'simplicity' emerged in architecture. It seems clear that such a tendency, so called Minimal Architecture, has risen as a reaction to the surfeit of sign and the mixture of languages generated by Postmodernism. This new simplicity is also related to the tradition of Modern Architecture and the Minimal Art Movement is 1960's.

They adopted simple primary Volume to avoid the main fluence on the already chaotic urban environment. As a result, a strong monumentality is achieved. The main interests for 'minimal' architects seem to be the making of simple structure and the repetition of modular elements to achieve an economic and efficient construction method. Transparent and honest expression is preferred instead of attaching another ornament skin on to the skeleton of the architecture.

키워드 : 즉자적공간, 사물성, 연극성, 경제성, 단순성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이브 알랭 부아¹⁾는 그의 저작 'Painting'에서 언급하기를, "현재 상황에서 천년왕국의 도래를 믿는 millenarianist적 종말의 감정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경축적인 것이든 우울한 것이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진단을 듣는다. 즉, 이데올로기의 죽음(리오타르 F. Lyotard), 산업사회의 죽음(벨 D.Bell), 실제의 죽음(보드리야르 J. Baudrillard), 저자의 죽음(바르트 R. Barthes), 인간의 죽음(푸코, M. Foucault), 역사의 죽음(코제브 Kojeve) 그리고 물론 모더니즘의 죽음(우리 모두가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들을 의미한다. 종말론에 대한 일관된 패러다임은 없으며 '그것의' 어조에 대한 존재론적 연구도 없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있는 시기로서의 오늘날, 아직도 잔존하는 산발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건축의 포스트 모던 시기가 종지부를 찍은 것은 명백하다. 1980년대까지를 기점으로 미국이

나 그 성향을 따르는 몇몇 나라에서의 도시 계획담당자들이나 건축가들이 자국의 도시를 풍요하게 만들겠다는 이유로, 혹은 신항도에 인위적인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던 유럽적 전통에 관한 인용작업조차 이제는 그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하여 일고 있는 미니멀리즘 Minimalism²⁾적 경향은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세대의 건축가들을 통하여 시도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서로간의 공통점과 참신한 차이점들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념의 혼란과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건축적 한계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줄 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

1)Yve-Alain Bois, "The Painting: The Task of Mourning", Endgame, 1986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pp.29-49

2)이 주제는 "가장 적은 것이 가장 많은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1960년대에 만들어진 조각이나 삼차원적 작품을 추구하였던 미니멀리스트 예술가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또한 1959년 F. Stella가 운동의 주도가 되어 MOMA에서 당시 유행하던 추상 표현주의 회화, 즉 자기축복과 낭만주의적 중만함에 잠겨 있었던 움직임들에 대항하여 일어난 고전풍의 반응으로 개최되었던 '16명의 미국인' 전과 관계한다. 그들의 그림들이 걸렸을 때 큰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이것이 미니멀리스트 예술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예술은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리고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주제들을 갖고 있었고 간단한 장식적 세부묘사마저 결여된 미술이다. 또한 조각가들 역시 기하학적으로 단순하며 재료의 노골성을 드러내거나 수정을 가하지 않고 산업생산된 작품 그대로를 제시하곤 하였다.

* 정회원,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조교수

1.2. 연구의 범위

유럽의 미니멀리즘적인 접근은, 먼저 전세계적으로 번져나갔던 포스트모던의 세대³⁾가 가져다 준 과다한 장식과 언어들의 남발에 대한 미학적 반작용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구태의연한 것으로 취급되면서 그 본래의 가치를 많이 상실해 버린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Less is more.'라는 미스 Mies의 교훈과, '기본적 불류형태의 유지'라는 르 코르뷔제 Le Corbusier의 노력, 그리고 '표준화된 경제성의 미학'을 강조한 바우하우스 Bauhaus적 전통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주의적 개념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려는 의지와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소비적인 대중주의와 장식적인 복고주의는 무한한 자원과 지속적인 풍요의 약속 아래에서나 가능한 것이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의 세기말적 상황에서는 경제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최소한의 것들로 구성되는 단순성의 미학이 오히려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단순성의 미학을 추구하였음에도 이태리를 중심으로 발전된 신흐리주의적 경향의 유형적 건축⁴⁾과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되는 미니멀리즘적인 건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간소하고 추상적인 양식에 접근하기 위하여 단순한 구조나 엄격한 비례를 선호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는 달리 단순성의 가치에 신소재의 용례와 새로운 기술적 엄밀성의 탐구, 그리고 양식적 전통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풍토성의 적극적인 도입이라는 면을 추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포스트모던 건축에 반하여 단순성의 미학을 전지하면서도 동시에 진취적인 개념 모색에 관심을 잃지 않고 있는 일련의 유럽 건축가군의 작품세계와 건축적 개념들이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다. 사실 현대 건축의 주류⁵⁾가 미니멀리즘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가들이 언급될 수도 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우발적인 한 두 작품만으로 전체적인 성향을 평가하지 않

기 위하여, 실현된 여러 작품과 개념전반에 걸쳐서 일관성있게 미니멀리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유럽의 건축가들만을 언급하게 된다.

2. 미니멀 예술의 배경

2.1. 서구에서 과학적 세계관의 변화

현대물리학은 물질의 개념이 바뀌었고 실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인간사고의 한계를 느낌으로 인간의식을 떠난 과학의 완전한 객관성이란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즉, 우주의 공간은 인과율에 의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적, 즉 유기체적 우주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카프라(F.Capra)박사의 저서 'The Turning Point'⁶⁾에서 보면 데카르트, 뉴턴식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300년간 지속된 집착에서부터 새로운 위기와 변형을 이룬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의 르네상스적 문명전환과도 비견할 만하다.

뉴턴의 위대한 성공은 과학발전의 급성장을 부추기게 되었으나, '물리학의 전자장', '생물학의 진화론' 등에서 단순기계론으로만 풀 수 없는 오묘한 법칙을 접하게 된다. 고전물리학의 절대공간, 절대시간은 이제 틀린 이론이 되었고,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지 않는다고 보게 되었다. 이것은 관찰자에 따라 그 동시성과 흐름이 다르다는 아인슈타인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닐스 보어는 하이젠 베르크의 불확정성은 관찰의 미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 본연의 속성이라고 했다.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고전과학이 분석과 분할을 학문의 방법으로 한데 반하여 유기체적 세계관의 신흐리학은 전일적인 종합의 방법을 중요시한다.

현대의 학문은 너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서 학문 또는 문화전체의 기반을 보지 못하기 쉽다. 이제 현대의 문화는 중요한 전환기를 요구하고 있다.

2.2. 모던예술에서 재현의 위기

폴 세잔느(1839~1906)는 사실주의를 해체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주의를 쇠신하여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불확실성을 포함시켰다. 그는 관찰과 관찰대상 사이의 상호작용, 즉 관찰자의 다양한 관점과 보는 행위에 개입되는 의심의 가능성이 재현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효과를 그림으로써 혁명적인 방향전환을 이루었다.

리오타르는 모던미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미술은 "재현 불가능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상상은 되나 볼 수 없고 보이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모던 예술의 위기이기도 하다.

상상되는 것, 예를 들어 무한하게 거대한 것,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의 Aura 숭고미이다⁷⁾. 이러

6)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The Turning Point), 1982, 이성범 역

3) 이 논문에서 포스트모던이라 함은 196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근대건축의 여러 주제들에 반하거나 보완하려 한 운동 전반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R.Venturi를 중심으로 전개된 미국의 대중주의, 도시적 컨텍스트와 전통적 유형을 중시한 A. Rossi와 Krier 형제가 주장한 신흐리주의 또는 역사주의, R.Bofill의 신고전주의, H.Hollein의 장식주의 등으로 분류되는 전반적 포스트모던 운동을 우선적으로 포함한 것이며, 비록 엄격한 의미의 포스트모던 건축과는 차이가 있지만 근대주의의 이성적 접근과는 달리 시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단편화하고 해체시킨 최근의 형식주의적 건축 경향인 해체주의 Deconstructivism까지를 포함하여 지칭하고 있다.

4) 정확히 말해서 Aldo Rossi, Giorgio Grassi 등으로 대표되는 유형적 비평의 이태리 노선은,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그 엄격하고 역사적인 단순미에 대한 끈질긴 애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태리 지역의 문화적 미학에 근거하여 지금까지도 적용하고 있다.

5) 국제적 규모로서 20세기 최후의 박람회로 인정받고 있는 '92년 스페인의 세빌리아 박람회'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처럼, 급조된 짧은 건축가 그룹들에 의해 설계된 핀란드관이나 프랑스관 등은 명백하게 미니멀리즘적 건축의 활약상을 알리는 예로 볼 수 있다. 핀란드관은 서로 재료가 다른 두 개의 단순한 박스만으로 이루어졌었고, 프랑스 관은 추상적인 2차원 면을 지닌 지붕과 그 아래로 놓인 하나의 직육면체가 건축물 구성의 전부이었다. Expo '92 Seville : Architecture and Design, Electa / Abbeville, pp. 213-223 참조.

한 예로 리오타르는 1915년 흰색 배경 위에 흰색 광장을 그려서 “재현할 수 없는 송고미를 재시현” 러시아의 카시미르 말레비치(K.Malevich, 1878-1935)를 적절하게 언급했다. 1919년 말레비치의 쉬프레마티즘(절대주의) 선언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송고미를 재현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1900년 초에서부터 1970년대까지의 예술은 서구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했다. 모더니즘의 발전에는 세 단계가 있었다. 첫째는 현실 재현의 위기로 세잔느, 입체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가 이것에 속하고, 둘째는 전시할 수 없는 것의 전시(추상)로 데스틸, 구성주의,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쉬프레마티즘과 미니멀리즘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는 궁극적으로 미학과정을 포기한 비전시 방식의 개념주의⁸⁾가 있다.

3. 미니멀 예술의 특성

3.1. 즉자적 예술성(Literal Art)

미니멀 아트, ABC 아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스페시픽 오브젝트 등의 다양한 용어로 알려졌던 미술사조는 대체로 이념적이다. 그들의 작품들을 모더니즘 회화나 조각에서 구분해 준다면 그것은 미니멀아트와 팝아트, 옹아트 사이에 중요한 구분을 설정해 준다.

리터럴 아트는 취미의 역사에 있어서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다. 오히려 감각의 역사-거의 자연사에 가까운-에 속하며 일반적이고도 지배적인 조건의 표현이다. 즉자적 예술은 스스로를 모더니즘 회화나 조각 중의 어느 것으로도 여기지 않으며 반대로 그것은 양자를 거부함으로써 존재의 근거를 찾는다. 즉 거의 모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상관적 성격을 거부한다. 공간이 갖는 일정한 전체는 있어야 하지만 부분들은 아예 없거나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되기 때문이다. 부분적 요소들은 거의 없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부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에 종속되어 있다. 그것은 거의 하나의 실체이고, 사물이다. 환영의 문체와 즉자적 공간(literal space), 즉 형태와 색채 속과 주위에 존재하는 공간의 문체를 제거해 버리는데 그것은 유럽 미술의 가장 현저하고도 못마땅한 유물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한계는 어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작품은 상상하는데 까지 만큼 강력해질 수 있다. 실제 공간은 평면에 그려진 그림보다 본질적으로 더 강력하고 특이한 것이다. 이것은 메를로 폰티⁹⁾와 그의 친구

쾨르트가 거론한 실체를 즉자(en soi)와 대자(pour soi)로 나누는 이분법에 해당한다.

저드와 모리스는 가능한 한 ‘하나의 사물’, 단일한 ‘특정대상’으로서 작품의 가치, 즉 전체성, 단일성, 불가분리성의 가치를 내세운다.

미니멀아트에 나타나는 현존성(presence)의 성격은 작품의 크기나 비예술적 모습에 의하여 부각될 수 있다. ‘비예술적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사물성이라 불리는 것이라 하겠다.

즉자적 예술이 사물성을 지지하는 것은 연극(theatre)의 새로운 장르를 요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극이란 미술의 부정이다. 즉자적 예술의 감각은 관람자가 리터럴리즘의 작품을 대하는 실제의 상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극적이다.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가 최초로 분석해 낸 즉자적 예술의 현존성은 기본적으로는 연극적 효과, 특이하며 일종의 무대 위에서의 현존성이다.

이에 따른 미니멀리즘적 표현에서 두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는 비상관적인 것, 동일 반복적인 것, 전체적인 것에 대한 리터럴리즘의 이념에 가장 근접한 의미에서 일상적 체험에서 마주치게 되는 실체 혹은 존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칭적인 것, 보다 일반적으로 연이어서 나타나는 단순한 질서는 자연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는 대부분의 미니멀의 작품이 속이 비어있음은 - 내면이 있다는 점이다¹⁰⁾ -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내적으로 비밀스러운 생명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적 형태(anthropomorphism)¹¹⁾라 할 수 있다.

3.2. 사물성

‘사물성 objecthood’이라는 말의 의미는 도널드 저드 Donald Judd 가 1965년에 발표한 ‘특수한 물체 Specific Objects’라는 글에서 드러난다. 그는 우선 피할수 없는 일류저니즘 Illusionism과, 화면 위에 무엇이 그려지든 간에 그것은 벽 위에 걸리게 되는 사각의 평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회화의 한계로 들고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진정한 공간인 3차원의 실제공간임을 지적했다.¹²⁾ 저드에 의하면, 더 이상의 새로운 개념이 고갈된 회화의 전통을 쇄신할 것은 회화도 조각도 아닌 ‘3차원의 작품이며, 회화와 조각을 통합하는 제3의 매체를 시사하는 그의 ‘특수한 물체’이다. 여기서 특수하다는 것은

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와 세계간에는 감각의 이중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이런 존재의 ‘들숨’과 ‘날숨’의 문체와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애매해짐은 폼피 특유의 관점인 애매성의 철학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 메를로 폰피와 애매성의 철학, 김형호, 철학과 현실사, 1996

10)공간의 시학,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박광수 옮김, 1990, 민음사, pp.113~156

11)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Artforum, 1967, Gregory Battcock 편, Minimal Art: A Critical Anthology, N. Y. E. P. Dutton, 1968, pp.116-147

12)Donald Judd, "Specific Objects", Arts Yearbook 8 (1965), repr. in American Artists on Art, ed. Ellen Johnson (Harper & Row, 1982), pp. 105-6.

7)Post Modernism, Richard Appignanesi, Icon Books, Barton, Cambridge, 1995

8)피에로 만조니의 배설물, 요셉보이스의 비계당어리로 만든 조각, 리차드 붕의 대지예술, 커트 슈비터즈의 쓰레기조각품으로 예견된 것

9)이미 이전에 지각적 의식과 경험에 대한 훔설의 ‘생활세계’(Lebenswelt), 그리고 이 세계의 기본적 실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존재자(Dasein)와 존재(Sein)에 있다는 하이데거의 ‘관찰자 중심성’을 거쳐 세계 속에서 자기주관화를 강조한 쾨르트를 비판하며 세계 속의 객관성을 고려했던 메를로 폰피는 그의 저서 ‘눈과 마음에서 지각의 기본성과 함께 본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고찰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체는 존재론적 관심의 이행이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나의 신체는 보는 것인 동시에 보여지는 것

실제공간과 전통적인 조각의 일류저니즘을 배제한 재료상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물체라는 지칭은 분할적인 요소를 지니지 않은 단일한 물체의 전체성을 가리키며, 이는 곧 형태, 이미지, 색채, 표현 등이 산만하지 않은 한 덩어리가 되는 형태를 뜻한다. 저드는 “3차원 작품의 가장 특이한 점은 그것이 물체의 상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말은 실제 3차원의 공간에 있는 물체보다 더 객관적인 것은 없다는 논리에 의거한 것이다.¹³⁾

3.3. 연극성

또다른 하나는 ‘연극성’이라는 개념 속에 나타나는 ‘단일형태 unitary forms’에 관한 것이다. 저드와는 달리 회화와 조각을 확실히 구별짓고, 감상과 마티에르의 풍요에서 드러나는 회화에서의 50여년에 걸친 일류저니즘의 극복과 객관성을 향한 노력이 조각에서는 불필요하며, 모리스는 조각에서 재료의 본래적인 것 이외에는 색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색채가 본질적으로 시각적이고 빗물질이기 때문에 조각의 물질성과 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⁴⁾ 그는 조각의 고유한 특성이 스케일, 비례, 형태, 부피 등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분할된 느낌을 주지 않은 채 강력한 게슈탈트 Gestalt적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형태이며, 이는 결국 규칙적이거나 혹은 불규칙적인 단순한 다면체에 귀결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형태를 ‘단일형태 unitary forms’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조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태에의 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제시되는 것이었다.¹⁵⁾ 그러나 모리스가 단일형태라고 부른 것은 조각의 크기와 전시공간, 그리고 관람자간의 역동적인 상관관계 internal relationship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람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작품이 상황 속에 경험되기 때문에, 이런 조각은 근본적으로 ‘연극성 theatricality’의 효과와 특성을 가진 것이어서 일종의 부대출현과 같은 것이다. 미니멀 조각에서의 연극성은 관람자가 강조되고 매체의 독립성이 부인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미술개념 자체에 대한 의미가 불투명해진다. 따라서 삶이 개입되는 연극적인 경험은 미술의 부정으로 귀결되기도 한다.¹⁶⁾

그리고 관객의 역할중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존 케이지 John Cage가 음악에서 강조한 부분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¹⁷⁾ 이는 원초적 음악에 대한 추구라는 면에서 미니멀리즘적이며, 그의 유명한 ‘

4’ 33”’이란 작품의 주체는 음악가보다는 청중으로서, 작품의 해석과 완성은 그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고 평가하는 것은 관람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적한 뒤상의 글 ‘창작행위 The Creative Act’(1957)나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의 ‘저자의 죽음 the Death of the Author’(1968)과도 연결된다.¹⁸⁾

3.4. 경제성

미술사에서는 1960년대를 흔히 그래프 용지의 시대, 격자무늬 grid의 시대, 또는 사물성 objecthood의 시대로 부른다. 이것은 추상 표현주의에 대립되는 후기 회화적 추상이나 미니멀 아트 등의 건조하고, 이성적이며, 또한 물질적인, 일견 지극히 미국적인 미술의 특성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식은 평범한 사실과 솔직한 발언을 높이 평가하는 미국의 명확한 전통과 실용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경제성’과 관계된다. 그리고 그것은 최적의 경제가 낳은 우아함을 위해 장식을 거부한다거나 디자인을 실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구한 조각가 칼 안드레 Carl Andre의 “미니멀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것 뿐이다.”라는 말이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니멀한 의식의 흐름¹⁹⁾은 뉴욕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사조의 중대한 개념으로 모든 지역에서 항상 자리해 왔다.

3.5. 모던 건축에서 유래된 단순성

이와 같이 예술사조의 전반에서처럼, 건축에 있어서도 미니멀한 의식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데, 타장르의 예술과는 달리 건축에서는 미니멀한 성향이 모더니즘 시기에 대한 반발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²⁰⁾

18) Marcel Duchamp, "The Creative Act", in Salt Seller, eds. Michel Sanouillet and Elmer Peterson, Oxford Univ. Press, 1973, pp. 138-140. ; Roland Barthes, Image, Music, Text, trans. Stephen Heath, Hill and Yang, 1977, pp. 142-148.

19) 미술사적 계보에서는 카시미르 말레비치와 알렉산드르 로드첸코와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에서부터 말년에 미국에 살았던 피에트 몬드리안, 요셉 앨버스의 작품에 이르는 절대주의 작가들, 테스틸 그룹, 구성주의 작가들의 추상회화와 조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니멀의 또다른 의미는 가공되지 않은 재료내지는 ‘발견된 오브제’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사물을 미술로 제시한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 ready mades’와 콘스탄틴 브랑쿠지의 조각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그 이전에 누구도 해내지 못한 미니멀의 한계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 배후의 충동은 1960년대에 여러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하던 시각예술가들을 고무했는데, 유럽에서는 요셉 보이스, 이브 클라인, 피에로 만초니와 같은 작가들이, 영국에서는 안소니 카로, 윌리엄 터널 등의 작가, 그리고 미국에선 에스워드 켈리, 프랭크 스텔라, 토니 스미스,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 칼 안드레와 같은 작가들이 대표적이다. Kenneth Baker 저, 김수기 역, 미니멀리즘, 열화당, 서울, 1995, pp.8-10. 참조

20) 장식성의 배제와 단순성에 대한 선호는 20세기초 아방가르드 Avant Garde 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예술가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시도된 의식이었다. 특히 근대건축의 가장 널리 알려진 속성은 노력의 불필요한 낭비 없이 목적을 직접적으로 만족시킨다는 특성이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비실용적’ 장식을 사용했던 19세기의 절충주의적 건축에 대한 대항이었다. 기능성

13) 강태희, 현대미술의 문맥읽기, 미진사, 서울, 1995, pp. 131-134.

14) E. C. Goosen, "The Artists Speaks : Robert Morris", Art In America 58 (May/ June 1970), p. 111.

15)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 Part I", Artforum (February 1966), pp. 22-8.

16)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in Minimal Art, ed. Gregory Battcock, Dutton, 1968, pp. 125-30.

17) 케이지는 동양철학의 주역 사상에 심취해 우연성의 원리, 즉 무작위성의 개념을 음악에 도입하였다. 이 우연적 기법은 1950년대 미국의 젊은 작곡가들에게 큰호응을 받았으며,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래의 음악은 음악 본래의 원초적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회화나 조각에서 일컫는 ‘미니멀 아트’를 본떠 내용이 최소화된 그들의 음악을 ‘미니멀 음악 Minimal Music’이라고 불렀다.

로버트 모리스의 미니멀리즘적 '단일형태'와 관련지을 수 있는 강력한 느낌을 주는 '단순한 형태'는 1908년, 이미 건축가 아돌프 로스 Adolf Loos의 대표적 저서인 '장식과 죄악 Ornament und Verbrechen'에서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던 장식적 요소를 제거한 형태의 단순성 그 자체가 미학적 가치를 얻기 시작한다.

그리고 퓨리즘적 접근을 한 르 꼬르뷔제의 1920년대 백색시대의 건축²¹⁾에서는 건축 내부공간의 풍성함을 지고의 가치로 삼고 있어서, 외형은 내부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단순한 볼륨을 유지하면서 기본적 형태가 주는 감동을 유발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미스 반 데로에의 건축적 특징을 대변하는 "적은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이다. Less is More." 라는 구호는 건축의 미니멀한 가치를 지원하는 가장 뚜렷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형태적으로 건축의 노출된 구조체가 그대로 건축이 되는 것이며, 그가 주장한 'Universal Space'는 하나의 건축이 형태의 변환을 겪지 않고 서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해 낼 수 있는 본질적 공간에 대한 설명이다. 미스의 명확한 구조와 건축의 본질적 요소를 향한 환원주의적 자세는 현대 미니멀 건축의 가장 구체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스의 1992년 유리마천루계획안과 같은 건축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투명 유리재료의 물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비물질성이라는 극단적 미니멀리즘의 개념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모더니즘 건축가들 중에서도 그가 가장 뚜렷이 드러내었던 건축적 특징이다.

4. 미니멀리즘적 성향의 건축가들

4.1. Wiel Ar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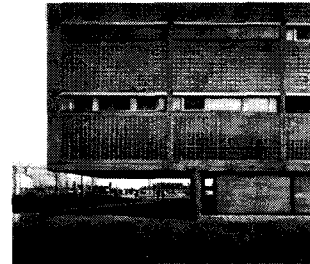
(1) 즉각적으로 인식되는 건축

간결한 인상을 주는 네델란드 건축가 Wiel Arets 의 건축은 그 외부의 순간적인 표정에서 이미 강렬하게 도전적인 형상을 지니고

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건물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건축의 영역에서는 르 꼬르뷔제, 아돌프 로스, 알베르 카뮈, 미스 반 데로에 등이 이를 지원하고 있었다.

21) 필자가 르 꼬르뷔제에의 건축을 경향에 따른 시대로 분류할 때 '백색시대'라 칭함은 일반적으로 그의 새로운 건축이 형성된 초기 주택작업에 몰두하던 시기로서 1922년 파리 근교 보크레송 Vaucresson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의 시기에서 시작하여 초기 주택 개념의 완성을 본 뵈와쉴Poissy의 사브와 Savoie 주택이 완성된 1929년까지 약 10년간의 시기로 본다. 백색시대의 주택들은 외장 색깔에 있어서만 백색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건축 철학에 있어서도 아직 변형 되지 않은 순수주의적 개념들과 공간의 가치를 추구하던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그의 '주택의 4 형식' Les quatre compositions이 모두 포함된 시기이다. 이외는 반대로 1950년대에 지어진 이유 Neully의 자울 Jaoul 주택과 인도의 쇼단 Shodhan 주택은 재료사용과 건축 철학에 있어서 백색시대의 건축과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브루탈리즘적 접근을 시도한 주택으로 본다. 현대 건축에서 자주 인용되어지는 백색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시기의 건축적 사상을 매너리즘적으로 수용했던 뉴욕 파이프의 건축을 소개하고 있는 책, Peter Eisenman et al.: Five Architects (Oxford Unive. press, N.Y. 1979) 와 Peter Eisenman and Robert A.M. Stern, ed.: Interview: White and Gray (A+U, 75: 04) p. 161

있다. 이는 마치 고전적 사원이나 미니멀 아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지의 주변을 참고하거나 엄밀히 모방하여 조화되려하기 보다는 대지를 거슬러 드러나는 단순한 볼륨의 독자적인 기념성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Ceramique Office Building <그림 1>에 대한 Ole Bouman의 평가에 따르면 "노란색 햇빛을 투영하는 유리 벽들로 된 커다란 화산드 패널의 견고한 입면은 불과 몇 초 동 안만 보아도 충분히 뚜렷한 도상인 것이다.



<그림 1> Ceramique Office Building, 1995, Wiel Arets.

그렇게 즉각적으로 인식되는 건축은 언제나 말을 멈추게 한다. 그 건물에는 자연스러운 분명함이 있다."²²⁾

그의 건축은 건물 스스로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위 환경이 주는 문맥을 뛰어넘고 있다. 단순하고 명료한 건축은 도시에서 형상 figure으로가 아니라 배경 ground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의 문맥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문맥을 의식하는 방법이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강조하는 언어와 상징, 기억, 그리고 엄밀한 문맥주의에 대한 집착, 해체주의의 은유성과 혼란에 보다 가까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Arets의 건축이 형태의 완성과 양면성, 재료와 기술의 질, 그리고 대지와와의 새롭고 빈틈없는 관계에 가치를 두는 쪽으로 건축이 변화해 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적인 조각에서 의도한 '연극성'은 매체와 관람자와의 역동적인 상관관계가 중시되지만, 미니멀리즘적인 건축에서는 주변을 향하여 드러나는 건축의 단순하고 강렬한 기념성이 주는 상관관계 이외에도 내면에서 보호되어 전개되는 공간의 풍성함을 기대하게 한다.

W. Arets의 작품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외벽의 반투명한 재료는 내부가 드러나 보이지 않으므로 건축이 면으로 인식되지 않고 매스로 읽히게 된다. 이는 입면의 분할에서 발생하는 형태의 복잡성을 배제하고 간결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미니멀리즘적 접근의 대표적 속성이다.

(2) 폐쇄적 외관의 건축

모더니즘 건축에서 추구해 왔던 단순성과 W. Arets적 단순성의 특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를 대표하는 르 꼬르뷔제에 의 백색시대 주택들이나 미스의 바르셀로나 독일 전시관의 경우, 비

22) Bouman Ole, Arets Liberales : laconique architecture versus a baroque discourse, El Croquis N. 85, 1997, p. 32.

록 외형에 있어서는 간결한 볼륨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나 공간의 확장성과 외부형태로 드러나면서 읽혀지는 내부의 기능이 중요한 조형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보다 경직되고 엄격하며 공간적으로 폐쇄적인 볼륨을 지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그의 작품은 아름다운 건축, 각각의 장소에 분명히 표현된 건축이 되었으나, 그 특성들은 자폐적이고 은둔적이며 고립적인 형태로 느껴질 위험이 있다. 오늘날 Maastricht 예술 및 건축 아카데미 같은 작품은 순수하게 현대적인 직관을 제공한다. 불투명과 투명의 경계, 완벽한 기하학적 라인, 대형 유리화 계단의 동시성 및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이 작품은 시작도 끝도 없는 미니멀리즘 음악 같아서 순수하고 수정 같은 현재에서 반역사주의적 기억을 없애고 원시적이고 신성하면서도 근대적이고 기술적인 기억을 향유한다. 과거와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경량 성을 통해 시간 속에 매달려 있는, 시간과 상관없는 작품인 것이다.²³⁾ 결국 건축에서는 복합적인 내부 공간을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간결한 표피로 감싸는 작업이 바로 미니멀리즘적 접근 방식이다.

“W. Arets가 설계한 것과 같은 고풍스러운 건축에서 당신은 언제나 결국은 혼자가 된다. 당신 내부 깊숙한 곳의 존재에 호소하고, 모든 감각의 방식으로 당신을 새롭게 하며, 당신의 감각을 공격하는 건물은 정신적 고독을 사전에 가정한다. 이러한 건물들이 아무리 종잡을 수 없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시간을 초월한 수도원적 전통과 연결된다. 그들이 도시 문맥 혹은 지적 문맥에 아무리 뿌리 박혀 있더라도 그들의 은둔적 정신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²⁴⁾

이와같이 W. Arets는 폐쇄된 볼륨 속에 시간을 초월하고 문맥을 초월한 공간의 복합성을 은둔적으로 그의 건축에 응축해 넣음으로서 미니멀리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4.2. Baumschlager & Eberle

(1)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축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Carlo Baumschlager와 Dietmar Eberle 그룹에 의해 시도되는 건축은 비록 미니멀리즘적인 미학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이유에서 아마추어 건설가인 건축주를 돕는 입장에서 제안되는 건축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최소한의 것, 즉 미니멀한 요소들로 작업이 완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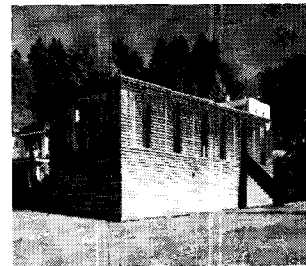
이들 건축가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와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사이에는 커다란 의견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은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한 부분의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건축물 실현에 있어서 중대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또한 디자인은 비용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태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생태와 경제 문제는 서로 매우 밀접하며, 건축가가 사회에 대하여 책임질 부분이

다. 기존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²⁵⁾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통한 경제성의 획득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작품으로는 Häusler 공동주택을 들 수 있다<그림2>. 일정한 모듈의 격자로 구성된 구조에 필요한 기능에 따라 면을 메우는 방식의 간편한 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은, 경제적인 목적이 결과로 만들어 낸 미니멀한 형태 디자인인 것이다. 이 경우 건물은 스스로의 순수한 재료와 구조 자체에 명료한 이미지를 가지지만 주변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대지 위에서 '사물성'으로만 존재한다.

(2) D.I.Y. 하우스 시스템

초기 'do-it-yourself' 하우스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많은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건축주를 위해 배려된 디자인이었다. 이는 경제성과 참여라는 '공동의 작업'이 가치를 갖는 것이다. Kern하우스와 같이 단순화된 직사각형의 박스가 대표적 예이다.



<그림 2> Kern House, 1989, Baumschlager & Eberle

이 주택에서 목재는 가장 친숙하고 용이한 자재였을 뿐 아니라, 그 지방의 전통적 재료이기도 했다.

비용의 측면에서도 조립식 재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기 단축의 효과도 있다. 이 건물은 나무격자 자재 한 가지만을 이용하여 뚜렷한 외관을 완성해 냄으로서 미니멀리즘적 예술품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체로 도달하고 있다.

4.3. Herzog & de Meuron

(1) 간결한 형태

단순한 볼륨의 즉각적인 인상과 재료의 노골적인 사용 그리고 이미지의 반복과 디테일의 면밀한 추구라는 측면에서 스위스의 건축가 그룹인 Jaques Herzog와 Pierre de Meuron의 작품은 현대의 미니멀리즘적 경향을 강하게 띠는 것들이다. 많은 현대의 건축가들이 복합적이고 이색적인 형태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Herzog & de Meuron의 경우는 단순하고 명확한 데카르트적 볼륨을 제안하고 있다.

포스트모던의 시기로부터 많은 건축가들이 선동적인 이벤트와 축

23) Montaner Josep Maria, El Croquis N. 85,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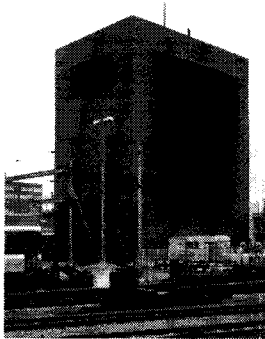
24) Ibid, p. 40.

25) Böhm Liesbeth Waechter, 바움슬라거와 에벨레와의 대담, Kporean Architecture N.151, 1997. pp.84-95.

제적인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Herzog & de Meuron은 실용적이고 축소적이며 단순한 계획에 더 열중하고 있다. Goetz Gallery와 Signal Box <그림 3>에서는 이미지가 전하는 정보보다는 그것이 창출하는 센세이션에 더 의존하고 있다. 마치 음악소리나 꽃향기 같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이고 감성적인 영향력에 더 관심이 있다. 그들은 건물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다.

“건물은 책처럼 읽혀질 수 없고, 화랑 속의 그림처럼 평판이나 부제, 제목이 없다. 건물은 건물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반 관념적이다.”²⁶⁾

이러한 건축의 목적은 개념을 설명하려 하거나 고딕 건축처럼 상징적인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방문객에게 남기는 즉각적이며 본능적인 영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3> Signal Box 4 Auf dem Wolf, 1995, Herzog & de Meuron.

Herzog & de Meuron이 이러한 접근은 미니멀 조각에서 시도된 것처럼, 단일형태로서의 ‘사물성’과 그와 관계지어지는 관람자의 ‘연극성’에 대한 건축적 경험을 더 구체화 시켜주는 예가 된다. Ricola 유럽 공장의 입면에서 사용된 식물의 잎사귀 이미지의 경우도 역시 상징적이거나 보다는 반복의 효과에 의해서 일상적인 것이 강렬한 ‘사물성’의 효과를 갖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2) 재료에 관한 연구

Herzog & de Meuron에 의해 개발되고 사용되는 재료는 상당한 부분에서 실험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유리와 콘크리트 위의 인쇄 기법은 그들 연구의 산물이다. 인쇄의 기법은 원래 존재했던 것이지만, 그것을 응용해서 콘크리트 위에 사진을 인쇄하는데 적용한 것이다. 이를 장식적인 접근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미 재료의 물성에 녹아서 인쇄되었다는 측면으로 보면, 거꾸집을 떼어내고 그 형상 그대로의 미학적 가치를 활용한 신브루탈리즘 건축가들과 동일한 재료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접근이기는 하지만 Signal Box에서 사용되는 동으로 된 띠와 같은 경우도 건물의 전자 표피가 아니며 동으로 된 띠 배열에서 퍼져 나오는 최면술의 망이다. 즉 외벽 위에 첨가되어 감각적 효과를 기대한 껍질의 망인 것이다. 이러한 건축재료의 여러 가지 사용기법을 가리켜 “화장의 기술”이라고 평가한 Jeffrey Kipnis의 논평이 하나 있다.

“Signal Box를 화장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건축적 의미를 감소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그 억제할 수 없는 오묘함을 포용하고, 그 활력을 인정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화장의 변형력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장식이 실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반면, 화장은 홍조나 음영, 하이라이트, 오로라 혹은 공기처럼 작용한다. 화장의 효과에서는 두께, 응집성, 분사의 정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지적이라기 보다는 노골적이고, 미학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효과를 낸다.”²⁷⁾

분리된 껍질을 재료에 흡수시킴으로써 단일형태 속에 편입시키는 화장의 작업은 미니멀리즘적인 개념의 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형태가 주는 노골성은 순수한 재료 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흡착된 화장과 더불어 더욱 강렬함을 갖는 것이다.

4.4. Dominique Perrault

(1) 미니멀리즘적 건축과 현대 도시

프랑스의 건축가 Dominique Perrault는 현대의 그 어느 건축가보다도 적극적으로 미니멀리즘적 성향의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그가 미니멀한 건축 철학을 갖고서 출발하는 이유는 무질서한 현대의 도시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관계가 있다. 그는 자신의 건축에 영향을 주는 예술가에 대한 언급에서 도시의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해법으로써 미니멀한 건축을 제안하려 한다.

“물론 많은 이들의 예술작업에 나는 관심을 갖고 있다. 특별히 내게는 도널드 저드 Donald Judd와 같은 예술가가 중요한데 그는 건축 전반은 물론 나의 가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 미니멀 예술이 추구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에 도달하고 잃어버린 근원을 다시 찾으려는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미니멀리즘은 주변의 다른 것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의 작품이 박물관에 놓여지거나 조경 속에 놓여지고 랜드 아트 Land Art로 사용될 때, 작품을 전경이나 환경 속에서 대비를 이루게 하며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데 이 반응이 바로 예술적 감흥인 것이며, 전경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내게 있어서도 도시가 하나의 전경인 셈이며 건축의 참여가 한 양식적 논의라기 보다는 진정한 환경으로서의 참여를 의미하고 있다.”

오늘날 도시의 극단적 상황은 미니멀한 형태를 선호하는 Perrault의 건축을 합법화하고 있다. 현대의 도시와 같이 무제한의 형상들이 남발되는 도시 속에서는 더 이상 형태와 색깔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 사막에서의 피라미드 건설 이후부터 모더니즘 시기의 미스 반 데로에가 제안한 파빌리온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단순 명료함은 거역할 수 없으리만치의 강력한 전경 속에서도 건축을 뚜렷이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Perrault는 보고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른 건축 기능의 복합성은 미

26) Herzog Jacques, Jeffrey Kipnis와의 대담, El Croquis n.84, P.19

27) Kipnis Jeffrey, The Cunning of Cosmetics, A personal reflection on the architecture of Herzog & de Meuron, El Croquis N. 84, p.22.

미니멀리즘적 형태의 한계속에서 해결되고 있는데, 초기 근대주의 건축가들이 주장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의식의 결과 A와 Perrault의 미니멀한 오브제로서의 해결책 B를 그의 도식적인 비교 크로키가 설명하고 있다. 그의 건축에서는 형태가 기능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되어진다.



〈그림 4〉 프랑스 국립도서관 서고와 중정 전경, 1995, Dominique Perrault

미니멀한 볼륨의 내부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외부의 한계는 도시의 전경 속에서 건축적 입장을 대변하고, 내부에서는 건축의 기능이 살아 있다.

파리 국립 도서관 La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그림4>의 경우, 단순한 네 개의 타워형 건물의 정돈된 형태가 도시 전경에 기념적으로 놓여진 랜드 아트적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도시와 격리된 고요한 내면성을 중정에 확보해 줌으로서 도서관의 열람실 기능을 실제적으로 돕고 있다.

(2) 재료의 빛물질성

건축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한 극단적인 예로,

재료의 비물질성을 의미하는 유리재료 사용에 관한 Perrault의 시도는 두 가지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먼저 그의 투명재료 사용을 미니멀한 건축의 명료함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적인 재료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건축에서 사용되는 유리면은 외부에서 내부를 투시하고 안에서 밖을 보기 위한 실제적 투명성의 가치보다 유리가 갖는 견고하면서도 깔끔한 외장재료로서의 역할이 우선된다. 투명성을 지닌 유리면 입에도 불구하고 네오-고딕적 성향을 지닌 하이-테크성향의 건축과는 달리 구조를 드러내지 않고 명쾌하게 정돈함으로써 도시 속에서의 단순함 볼륨을 지닌 미니멀한 예술품화 하고 있다.

페로의 유리 벽면은 단순한 건축의 외관을 마무리하는 역할 이외에도, 유리표면 안쪽의 중첩된 파사드의 복잡성으로부터 빛과 그림자의 대비에 의해서 색다른 파사드의 깊이를 획득하고 있다. 이 중첩의 반복된 효과는 미니멀한 예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복성의 미학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5. 결론

5.1. 현대도시와 최소주의 건축성향의 당위성

오늘날의 무질서한 도시적 환경과 포스트모던 건축의 무분별한 형상의 남발, 그리고 오랜 불황의 시기를 지속해 온 유럽의 경제적 상황은 건축 활동에 있어서의 미니멀리즘적인 접근을 합법화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니멀리즘적 성향은 예술사 전반을 통하여 언제나 그 의식의 면면한 흐름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유럽 미니멀리즘 건축에 미치고 있는 직접적 영향은 주로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Minimal Art 운동'에서 나타났던 본질적인 리얼리티를 향한 강렬함과 최적의 경제성을 획득하기 위한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20세기초의 '모더니즘 건축'에서 탐구되었던 형태적 단순성의 미학과 독자적 공간인식을 덧붙이면서 생성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니멀리즘적 경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단순성의 형태 미학을 견지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개념 모색에 관심을 잃지 않는 네 명의 유럽 건축가들의 작품과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각각의 개성 있는 건축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니멀리즘적인 개념의 근간이 되는 독자적 예술 방식의 해결책과 단순한 형태의 추구, 본질적 재료의 사용, 경제성의 원리를 동일하게 지향하고 있다.

5.2. 최소주의 건축의 특징

네델란드의 건축가 Wiel Arets는 주변의 컨텍스트에서 즉각적으로 인식되는 단순하고 강렬한 외관과 폐쇄적인 건축 내면의 복잡한 인 공간 변화에 관심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그룹인 Baumschlager와 Eberle는 풍토적이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설 방식을 추구하면서 미니멀한 미학적 성과를 얻고 있다.

Herzog와 de Meuron 그룹은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기술이 발달된 나라 스위스의 배경을 가진 건축가들로서 간결한 볼륨 위에 완벽한 화강의 테크닉을 구가한 디테일로써 그들의 미니멀한 형상을 완성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건축가인 Dominique Perrault는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프랑스의 생산주의적 배경을 업고서 근대의 전통과 기술적 정확성, 그리고 새로운 실험적 태도로만 가능한 명료함과 현학적 재료의 비물질성으로 또다른 미니멀리즘적 이상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세 명의 건축가들과 한가지로 열악한 도시 전경을 극복하는 한 방편으로 미니멀한 건축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네 명의 미니멀리스트 건축가들의 작품과 이론을 살펴보면 현대 유럽의 미니멀리즘적 건축 성향의 공통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볼륨의 간결성/ 공간의 내면적 풍요, 장식의 회피, 은둔적 윤리, 전경 속에서의 기념성.
- 2) 재료의 추상성/ 재료의 노골적 표현, 투명한 재료의 비물질화, 표피 재료의 덧붙임 작업.
- 3) 건설의 경제성/ 합리적 구조, 반복의 원리.

이처럼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형태, 더욱 솔직하고 투명한 재료,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실용성을 추구하는 건축의 미니멀리즘적 성향은, 오늘날과 같이 한계에 부딪힌 건축의 양식과 무분별한 현대 도시의 열악한 전경과 그리고 미래의 엔트로피적 세계를 위하여 마련된, 성장과 발전의 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Yve-Alain Bois, *The Painting: The Task of Mourning, Endgame*, 1986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2. 새로운 과학과 문명(The Turning Point), 이성범 역, 1982
3. Post Modernism, Richard Appagnanesi, Icon Books, Barton, Cambridge, 1995
4. 공간의 시학,Gaston Bachelard, 곽광수 역, 민음사, 1990
5. Michael Fried, *Art and Objecthood*, Artform, 1967
5. Donald Judd, *Specific Objects*, Art Yearbook8, 1965
6. E.C.Goosen, *The Artists Speaks:Robert Morris*, Art In America 58(May/June 1970)
7. Robert Morris, *Notes on Sculpture*,part1, Artform (February1996)
8. Marcel Duchamp, *The creative Art*, in Salt Seller eds. Michael Sanouillet and Elmer Peterson, Oxford press
9. Keneth Baker, 미니멀리즘, 김수기역, 열화당, 1995
10. Bouman Ole, *Arts Liberales:laconiquis architecture. Versus a baroque dicourse*, El croquis N.85,1997
11. Kippris Jeffrey, *The Cunning of Cosmetics, A personal reflection on the architecture of Herzog and de Meuron*. El croquis N.84. 1997
12. Hal Foster, *Crox of Minimalism*, David Frankel편, Abbeville press, NewYork 1986
13. 예술과 현상학 (Phenomenology and Art), M. Merleau-Ponty, 오병남 역, 서광사, 1983

〈접수 : 1998. 2. 16〉